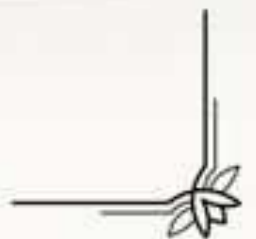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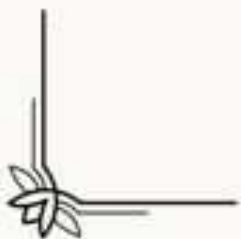


한국사찰의 일상과 규범

Daily life and disciplines of
Korean monasteries

1주차

[교단의 형성과 계율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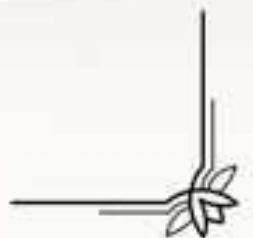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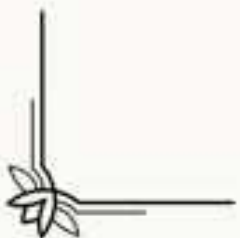
목 차

I	학습안내	3
---	------------	---

II	강 의	5
----	-----------	---

III	퀴 즈	23
-----	-----------	----

IV	참고문헌	25
----	------------	----



I . 학습안내

1

강의개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이후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래되면서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 구성원의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학습목표

현재 한국 사찰에서 실행되고 있는 수계의식이나 포살과 같은 주요 의식 및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규범의 기원 및 변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한국불교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3

주차별 강의주제

1주차	교단의 형상과 계율의 제정
2주차	대승불교의 발생과 보살계의 등장
3주차	광률 및 보살계 경전의 역출
4주차	청규의 제정
5주차	한국 고대의 계율
6주차	고려의 선종 문화와 청규의 수용
7주차	조선의 불교 쇠퇴와 비구계맥의 회복
8주차	근대기의 결사와 청규
9주차	사찰의 일상과 규범(1)
10주차	사찰의 일상과 규범(2)

II . 강의

1-1

사중과 칠중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한문 불전 번역학과에서 한문 불전 및 팔리어 문헌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불교 원전 독해를 가르치고 있는 이자랑입니다.

앞으로 10주에 걸쳐 ‘한국사찰의 일상과 규범’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되는데요.

1주차에는 교단의 형성과 계율의 제정이라는 주제하에 인도에서 성립한 불교가 교단을 형성하고 각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정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정된 규범은 이후 다소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시에는 교단의 구성원인 사중과 칠중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교단의 구성원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교단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또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교단의 운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교 교단의 주요 구성원을 흔히 사중이라고 합니다. 사중이란 네 무리라는 의미인데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를 가리킵니다. 비구는 남성 출가 수행자이며 비구니는 여성 출가 수행자입니다. 즉, 각각 남녀 출가 수행자를 가리킵니다.

비구는 산스크리트어로 ‘빅슈’라고 하는데 ‘구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비구니의 원어는 ‘빅슈니’로 비구의 여성형에 해당합니다. 비구와 비구니는 출가해서 불법에 따라 수행하는 승려들인데 이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모아놓은 ‘율장’이라는 문헌에 따르면 출가자는 생산 활동이나 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모든 의식주 생활은 재가신자의 보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요. 보시받지 않고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물과 양지뿐이라고 할 정도로 이 원칙은 고수됩니다. 여기서 양지라고 하는 건 식사 후에 치아를 청소하는 치목 같은 것을 말합니다. ‘구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는 ‘빅슈’ 혹은 ‘빅슈니’가 불교 교단의 출가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칙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한편 우바새는 남성 재가 신자를 의미하는데 우바새의 원어인 ‘우파사카’는 ‘돌보는 자, 시중드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바이, 즉 우파시카는 그 여성형입니다.

우파사카나 우파시카가 갖는 의미 역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가 신자는 출가자의 의식주를 담당하며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네 무리는 불교 교단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은 다음 문장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아, 바라문과 가장들은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바라문과 가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재가 신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의복, 먹거리, 와좌구, 의약을 공급해 준다. 비구들아, 너희도 또한 바라문과 가장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치와 문장을 갖춘 비할 바 없는 원만한 청정행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서로 도와가며 폭류를 건너기 위해, 올바르게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 범행에 머무르는 것이다. 재가자들과 출가자들은 서로 의지하며 한없이 안온한 정법을 번성시킨다. 출가자들은 의복과 자구, 와좌구, 위험으로부터의 피난을 재가자로부터 받는다. 또한 재가자들은 선서(善逝)에 의지하고 아라한을 믿고 성스러운 지혜에 의해 삼매에 도달하고 이 세상에서 선취(善趣)로의 길인 법을 닦고 천계를 즐기며 희망을 품고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잇티붓타카라고 하는 초기의 소부경전에 적혀있는 내용인데요.

이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재가자는 출가자에게 의식주 전반에 걸쳐 물질적인 보시를 함으로써 출가자가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출가자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수행하며 재가자를 위해 법을 설하여 그들의 심신을 평화롭게 해 줍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며 돕는 행위를 통해 출가와 재가라고 하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갖는 두 세계가 종교적으로 가치를 갖는 하나의 완전한 세계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중은 교단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인데요.

한편 이들 외에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라고 하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가자입니다. 사미는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기 전의 남성 예비 출가 승려이며 사미니는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기 전의 여성 예비 출가 승려입니다.

한편 식차마나는 여성에게만 있는 신분으로 사미니에서 비구니가 될 때 거치게 되는 중간 단계입니다. 기간은 2년입니다. 즉, 남성의 경우에는 사미의 신분에서 구족계를 받고 곧바로 비구가 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사미니에서 식차마나를 거쳐 비구니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성에게만 식차마나라는 신분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교 문헌에서도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정도의 설명만이 있을 뿐 명확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를 출가 오중이라고 하고 이 오중에 우바새와 우바이를 넣어 칠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출가자와 재가자를 모두 포함한 불교의 공동체를 교단이라는 말로 지칭해 왔는데요. 교단이란 용어는 광의로는 사중 특히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로 이루어진 집단을 가리키고 협의로는 비구와 비구니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후자를 가리킬 때는 승가라는 말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본 강의에서도 사중 혹은 칠중 전체를 모두 포함할 때는 교단이라는 용어를, 출가자만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리킬

때는 승가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승가라는 용어는 불교의 개조인 고타마 붓다 당시에는 단체, 특히 종교 단체를 의미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었는데 불교 역시 이를 수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중 가운데 최초로 붓다에게 귀의한 제자는 우바새입니다.

고타마 붓다는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돌며 자신이 깨달은 법의 미묘함을 되새기고 있었는데요. 라자야타나라는 나무 밑에 있을 때 타풋사와 발리카라는 상인의 공양과 귀의를 받게 됩니다. 이 2명의 상인은 마침 그 주변을 지나다가 근처에서 깨달은 자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깨달은 자에게 공양하면 큰 공덕을 쌓게 된다는 수신(樹神) 즉, 나무신의 권유로 고타마 붓다를 찾아와 보리 과자와 밀환을 보시하게 됩니다. 이들이 최초의 제자입니다.

다만 이들은 아직 승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귀의했기 때문에 보통 이귀의 제자라 불립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개조인 붓다, 붓다가 설한 가르침, 붓다의 제자인 비구와 비구니가 형성한 승가를 각각 불보, 법보, 승보라고 해서 불교를 구성하는 3개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즉 불교 이컬 삼보인데요.

타풋사와 발리카의 경우에는 불보와 법보에 귀의했다고 해서 이귀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 붓다의 제자가 된 것은 5명의 비구입니다. 전법을 결심한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미묘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로 한때 함께 수행한 적이 있는 5명의 수행자를 떠올리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고타마 붓다의 아버지인 숲도다나왕이 출가한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보낸 사람들이라고 전해집니다.

고타마가 6년간 혹독한 고행을 함께할 때 수행했는데요. 고타마가 고행 수행의 한계를 깨닫고는 니란자나강에서 목욕 후에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먹는 것을 보고 타락했다고 하면서 떠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붓다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귀의하여 붓다의 첫 비구 제자가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비구승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그 후에 야사라는 청년과 그의 친구 54명이 출가하면서 붓다와 다섯 비구 그리고 이들 55명을 더한 총 61명의 아라한 즉, 깨달은 자들이 비구 승가를 형성하자 붓다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전법 활동을 권유하게 됩니다. 한편 야사의 부모와 아내가 귀의하면서 우바새와 우바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아까 타풋사와 발리카를 이귀의 제자라고 했는데 야사의 아버지는 승가 성립 후에 귀의했으므로 삼귀의를 한 첫 우바새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사의 어머니와 아내는 첫 우바이 제자입니다. 비구니 승가는 고타마 붓다의 양모였던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의 출가로 실현됩니다. 붓다는 처음에는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시자인 아난다의 권유로 승낙했다고 합니다. 다만 팔경 계라 불리는 여덟 가지 계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붓다의 아들인 라훌라가 어린 나이에 출가하면서 첫 사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첫 사미니와 식차마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단의 구성원인 사중과 칠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단의 핵심 구성원은 출가 남녀 수행자인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재가 남녀 신자인 우바새와 우바이로 구성됩니다. 재가자는 출가자의 의식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출가자는 재가자에게 법을 베풀며 4개의 기둥처럼 교단을 구성 내지 지탱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중 가운데서 비구와 비구니의 수계 의식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신분을 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비구·비구니의 수계의식

이번 시간에는 비구와 비구니의 수계 의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가의 정식 구성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하게 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비구 혹은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계 의식을 통해 구족계라 불리는 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 계를 모아놓은 조문집을 바라제목차라고 하고 하나하나의 조문은 학습해야 할 구절이라는 의미에서 학처라고 합니다. 이들 계를 비롯해서 승가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규범을 모아놓은 문헌을 율장이라고 하는데요. 율장은 전지한 부파에 따라 다양하며 그 종류에 따라 조문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장부라고 하는 부파가 전지한 사분율에서는 비구의 경우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설합니다.

보통 비구보다 비구니의 경우 한 2배 정도 많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그렇지는 않고요. 한 100개 정도 많습니다. 구족계 의식을 거쳐서 비구, 비구니가 된 자는 이후에 이 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편, 6대 광률(廣律)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형태로 현존하는 여섯 가지 종류의 율장이 있습니다. 즉, 법장부의 ‘사분율’을 비롯해서 화지부의 ‘오분율’ 그리고 설일체유부의 ‘십송률’ 그다음에 근본설일체유부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그리고 대중부의 ‘마하승기율’, 분별상좌부의 위나야피타카(Vinayapitaka)입니다. 이 중에서 분별상좌부의 위나야피타카만 팔리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역본입니다. ‘사분율’과 ‘오분율’, ‘십송률’, ‘마하승기율’은 5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서 중국에서 번역되었고,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만 8세기 초에 의정에 의해서 번역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분율’은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이나 일본 등의 동아시아 불교 교단에서 무엇보다 중시되어 온 율장이며 전통적으로 ‘사분율’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율장 중에서는 ‘사분율’을 중심으로 스님들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나야피타카는 현재 스리랑카를 비롯한 태국과 미얀마 등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수지하고 있는 율장입니다.

구족계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삼사칠증이라 불리는 10명의 스님이 필요합니다.

즉, 비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10명의 비구가 모인 자리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하는데요. 삼사칠증이란 3명의 스승과 7명의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3명의 스승은 화상, 갈마사, 교수사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화상은 출가 희망자 즉, 비구가 되고자 희망하는 자가 제대로 된 수계의식을 받고 비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출가 희망자가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된 후에는 출가 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며 보살펴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출가자와 화상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아플 때는 서로 돌봐주는 등 세속의 부자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마사는 수계 의식을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을 하는 승려를 말합니다.

승가 즉, 출가자 공동체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을 갈마라고 불리는 의식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구족계 수계 의식도 구족계갈마 혹은 수계갈마라 부릅니다. 갈마사는 이 의식을 진행하는 승려를 말합니다.

한편 삼사 중에서 교수사는 차법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승려인데요. 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 희망자가 구족계를 수지하는 데 있어서 혹시 장애가 되는 요인은 없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승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가한다면 나중에 부모가 승가에 찾아와서 항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법은 총 스무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만약에 이 중의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 요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출가했을 때 승가라는 공동체 생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예를 들어 전염병을 지녔다거나 성 소수자이거나 혹은 승가를 분열시킨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전염병을 갖고 있다면 승가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소수자의 경우에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법을 통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예나 빚을 진 자 혹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주인이나 채무자, 부모 등이 훗날 승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20세가 안 되었거나 화상이 없는 자는 아직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이름이 알려진 범죄자도 차법에 포함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냥 범죄자가 아닌 이름이 알려지거나 몸에 낙인이 있어서 그가 범죄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앙굴리말라라고 해서요. 보통 99명이라고도 하고 전승에 따라서는 999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로 해서 걸고 다녔다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출가했을 때 워낙 많은 사람이 앙굴리말라가 그렇게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를 불교 교단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런 범죄자를 받아들여서 교화하고 수행하도록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와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대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냥 범죄자가 아닌 이름이 알려지거나 몸에 낙인이 있어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범죄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차법을 통해서 구족계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가 범죄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출가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승가가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해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장애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일반인들의 비난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렇듯 차법은 대부분 그를 출가시킴으로 인해서 승가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일반 사회로부터 비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족계 수계 의식에서 실행되는 또 하나의 절차는 사의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는 일입니다.

사의란 불교 수행자가 지켜야 할 의식주 생활에 관한 네 가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데요. 첫 번째는 결식입니다.

결식이란 탁발로 음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출가자는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재가 신자의 보시를 통해 음식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출가자는 설사 나무에서 과실이 떨어져서 덩굴고 있어도 그거를 그대로 주워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재가자의 손을 통해서 보시받은 음식만을 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의 중에서 두 번째는 분소의입니다. 분소의란 산모가 출산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감쌀 때 사용하거나 해서 더 이상 효용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옷감 등을 주워서 이어 붙여 만든 옷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수하좌입니다. 나무 밑이나 수풀 등 지붕이 없는 야외에서 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소의 똥오줌을 발효시켜서 만든 약을 말합니다. 이 약은 보통 위장병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오후불시라고 해서 출가자들은 오전 중에 한 번을 식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장 장애도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한 번에 과식을 한다거나 해서. 그럴 때 이 진기약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는 요컨대 식생활은 결식을 통해서 얻은 음식으로 해결하고 의생활은 버려진 옷감을 이어 붙여 만든 분소의로 해결하고 주생활은 야외에서 자는 것으로 해결하고 아플 때 복용하는 약은 소의 똥오줌을 발효시켜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출가해서 반드시 이대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이상적인 원칙으로서 구족계 의식을 받을 때 고지하게 되었는가 하면

승가에 보시가 많아지면서 풍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해서 구족계를 받으려는 자가 나타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가 생활이란 원래 이렇게 고달픈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설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상일 뿐 실제로는 신자들의 초대를 받으면 청식에도 응하고 옷도 일반적인 옷감을 보시받아 걸쳤으며 거주처도 승원 등을 보시받아 머물렀고 약도 스스로 탐하지만 않으면 좋은 음식이나 약을 보시받아 복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옷감의 경우에는 새 옷감을 받아도 일단 조각내어 자른 후에 다시 이어 붙여 꿰맨 후 갈색으로 물들여 착용했습니다. 새것에 대한 집착심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비구니가 되기 위한 수계 의식은 흔히 이부승수계라고 하는데요. 이부승이란 비구니승가와 비구 승가를 의미합니다.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삼사칠증으로 구성된 비구승가에서 수계 의식을 치루면 되지만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는 삼사칠증으로 구성된 비구니승가에서 수계 의식을 치루고 다시 당일 중으로 삼사칠증으로 구성된 비구승가에 가서 수계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를 이부승수계라고 합니다. 요컨대 비구니 승가만으로는 비구니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구니 승가는 비구승가와는 별도로 자치 운영되고 있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비구승가의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구족계 의식이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근년에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비구니승가의 재건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는 율장에서 설하는 이부승수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삼사칠증을 구성할 정식 비구니가 없는 상황에서 이부승수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대승 불교권에서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도움을 주고자 했고 실제로 도왔지만 이들이 전통적인 테라와다 불교권의 비구니가 아니라는 점은 적어도 테라와다 불교권 안에서는 이부승수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부승수계 외에 비구니의 수계 의식은 비구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사칠증을 동반하고 실행되어야 하며 차법도 확인합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차법의 내용에 있어 여성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구, 비구니의 수계 의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의 수지를 약속하는 구족계 의식을 삼사칠증의 입회하에 거쳐야만 각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족계 의식에서는 차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격 검증도 있었고 사의라고 하는 출가 생활의 이상적 생활상을 고지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승가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안에서 적용되는 율이라는 규범 그리고 승가의 주요 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

승가와 율

이번 시간에는 승가의 범위와 그 안에서 적용되는 규범인 율 그리고 승가의 주요 행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승가의 운영 원리 및 이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구, 비구니로 구성된 공동체를 승가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율이라고 부릅니다. 율이란 위나야(vinaya)라는 산스크리트어의 한역입니다. 위나야는 ‘제거한다, 훈련한다, 교육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 ‘비니’로부터 파생된 명사로 ‘규칙’이나 ‘조복(調伏), 멸(滅)’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심신을 잘 다스려 번뇌나 악행을 제거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뜻인데 이로부터 발전해서 출가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승가 공동체의 규칙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승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강제적이고도 객관적인 규범인데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입할 때 회원 규정이나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의 구족계를 받고 이를 지키겠다는 약속하에 승가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율은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 그치는 규범이 아닌 승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어기게 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율 규범을 모아놓은 것을 율장이라고 합니다.

불교성전은 삼장으로 분류되는데요. 장이라고 번역된 피타카는 바구니를 의미하니까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3개의 바구니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경장은 경을 모아놓은 바구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붓다가 설한 가르침 중에서 교리적인 내용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바구니에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율장은 붓다가 비구와 비구니를 위해서 제정한 승가의 규범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즉, 율 조문을 모아놓은 문헌을 율장이라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경장과 율장은 붓다 입멸 후에 열린 제1차 결집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편찬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에 대해서는 아난다라고 하는 비구가 그다음에 율에 대해서는 우파리라고 하는 비구가 암송하고 나머지 아라한들이 그 내용을 듣고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이게 됩니다.

한편 논장은 부파 분열 후에 각 부파의 입장에서 불교 교리를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율장은 크게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번째는 경분별이라고 불립니다. 경분별은 비구경분별과 비구니경분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분별이란 경에 대한 해설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모아놓은 조문집인 바라제목차를 의미합니다. 바라제목차는 계경 혹은 계본이라고 한역됩니다. 바라제목차는 구족계 조문만을 모아놓은 조문집인데요. 경분별에서는 이 조문들에 대해서 각각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즉, 각 조문이 왜 제정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비구가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

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여러 가지 인연담을 비롯해서 각 조문에 나오는 어구의 의미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가 되는 행위는 어떤 것인지, 어떤 행동이 미수죄에 해당하고 어떤 죄는 실제로 그 죄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행동은 그 죄에 가깝지만 비교적 가벼운 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각각 죄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분별을 보면 각 조문의 제정 배경이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라제목차를 비롯해서 경분별에서 다루어지는 구족계는 일반적으로 지지계라고 해서 비구와 비구니가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건도부는 작지계라고 하는데요. 승가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살이나 안거, 자자, 구족계 의식과 같은 주로 승가의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많고 이 규정들과 관련해서 승가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규정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승가의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불멸 후에 개최된 제1차, 제2차 결집에 관한 기술도 있고 또한 붓다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교단을 어떻게 정비해갔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고 또한 의식주에 관한 내용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족계는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므로 어겼을 경우 본인이 벌을 받거나 참회를 하면 되지만 작지계는 승가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물론 본인의 속죄도 중요하지만 행사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승가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미리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 행사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 행사에서 나온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교 교단은 붓다의 입멸 후에 100년 경쯤 지났을 때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하고 그 후 18 혹은 20부파로까지 분열해 갔다고 하는데요. 현존하는 율장 중에서 상좌부에 속하는 분별상좌부 전승의 팔리율 즉, 위나야피타카와 법장부의 사분율, 화지부의 오분율, 설일체유부의 십송률 등은 건도부의 형식이나 내용이 유사한 한편 대중부의 마하승기율은 건도부의 형식이 완전히 달라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지금 대중부 쪽에서 현존하고 있는 광률은 마하승기율 하나뿐입니다. 경분별과 건도부 외에 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경분별과 건도부보다 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건도부에서 설하는 내용을 외우기 쉽도록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이라 불리는 규범들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물론 승가인데요. 막연히 승가라고 하면 비구, 비구니로 구성된 승가 전체를 의미하게 되므로 너무 규모가 크죠. 또한 율을 어겼을 때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 후에 벌칙을 내리게 되는지 그 주체도 알 수 없고 무엇보다 건도부에 규정된 규범들은 승가의 행사에 관한 것인데 모든 비구와 비구니가 각각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율장에서는 율을 적용할 수 있는 승가로 현전승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현전이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전승가란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있는 승가를 말합니다. 이 현전승가는 결계라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결계란 계를 묶는다는 의미인데요. 동서남북으로 일정한 표식을 정하고 그 내부 공간을 하나의 승가로 보는 것입니다. 현전승가는 최소 4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명일 경우에는 실행할 수 없는 갈마가 있는데요. 갈마란 승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자라고 해서 안거가 끝난 후에 실행하는 갈마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승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4명이 있을 때는 자자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족계 수계 갈마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승려가 필요합니다. 그 이하의 승가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지, 변두리에서는 10명의 승려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5명으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갈마를 실행할 수 있는 완벽한 승가는 20명 이상의 승가입니다. 그리고 물론 비구와 비구니는 함께 현전승가를 구성할 수 없으며 비구는 비구끼리, 비구니는 비구니끼리 구성하게 됩니다.

갈마에 대해 좀 더 추가 설명드리자면요. 승가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을 갈마를 통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비구, 비구니를 받아들일때도 구족계 갈마를 하고 승가에 싸움이 발생했을 때도 쟁사 갈마라는 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또한 승가의 소임자를 선출할 때도 갈마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갈마를 진행할 때는 안건을 고지하고 이 안건에 대해 그 자리에 모인 승려들에게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찬반 여부를 한 번 묻기도 하고 세 번 묻기도 합니다. 한 번 묻는 것을 백이갈마, 세 번 묻는 것을 백사갈마라고 합니다. 구족계나 포살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백사갈마로 실행하고 소임자 선발 같은 것은 백이갈마로 실행합니다. 한편 백일갈마는 안건의 고지만 있을 뿐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없는 갈마입니다. 예를 들어 포살하는 장소를 승가의 구성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찬반 확인 없이 그냥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마에는 주요한 2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원 출석과 만장일치입니다. 앞서 결계와 현전승가에 대해 설명드렸습시다만 결계를 통해 형성된 현전승가에서 갈마가 이루어질 때 그 현전승가에 속한 비구 혹은 비구니들은 반드시 전원 출석해야 하며 사안을 결정할 때도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이는 갈마의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갈마의 2대 원칙이 현전승가 전원의 출석과 만장일치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전승가의 구성원은 항상 한자리에 모여 의사 결정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율장에서는 승가를 화합승 즉, 화합한 승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화합이란 올바른 방법으로 갈마가 실행되고 거기서 난 결론에 따라 승가가 운영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전승가라는 작은 단위의 승가가 아니라면 전원 출석이나 만장일치라는 갈마의 조건은 실제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막연히 승가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몇 명이 있는지, 갈마에 다 참석했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불교 세계의 모든 승려가 다 한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이겠죠. 따라서 갈마

는 현전승가를 기준으로 실행되고 모든 율 조문 역시 현전승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누군가 율을 어기게 되면 현전승가 안의 모든 비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의 범계 여부를 파악하고 죄를 결정하는 갈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전승가를 기준으로 승가의 모든 갈마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중의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포살입니다.

포살은 보름마다 한 번씩 동일한 경계 안의 승려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라제목차가 낭송되는 것을 들으며 보름 동안 범계한 사실은 없는지 자타를 돌아보는 갈마입니다. 비구승가에서는 비구들끼리 모여 비구 바라제목차를, 비구니승가에서는 비구니들끼리 모여 비구니 바라제목차를 낭송하게 됩니다. 포살은 승가의 청정을 확인하는 의식이자 화합 상태를 확인하는 의식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불교가 동북아시아로 전래된 후 단절 없이 지속된 것은 아니지만 수계 의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지며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교단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포살 의식의 재정비나 실행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이 적용되는 현전승가의 성격을 결계와 갈마의 실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승가의 주요 행사인 포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족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구족계의 내용

이번 시간에는 율의 제정 원칙과 목적을 학습함으로써 승가에 율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나아가 구족계의 내용과 형식을 학습함으로써 비구와 비구니가 평생 수지해야 할 규범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팔리울 경분별(經分別) 첫머리에서는 구족계 조문을 설명하기 전에 승가에 처음 율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붓다와 제자인 사리풋타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인데요. 사리풋타가 붓다 이전의 과거불 중에서 어떤 과거불의 범행(梵行)은 오래 지속되고 왜 어떤 과거불의 범행은 그렇지 못했는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붓다는 제자들을 위해 조문을 제정하고 바라제목차를 송출한 과거불의 범행은 오래갔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과거불의 범행은 지속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사리풋타가 조문을 제정하고 바라제목차를 송출하는 것이야말로 범행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확신하면서 붓다에게 조문을 제정해 달라고 조르게 되는데요. 이때 붓다는 거절하면서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승가에 유루법이 발생하면 그때 비로소 여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루법을 끊어

주기 위해 조문을 제정하고 바라제목차를 송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석에 의하면 붓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마치 병으로 고통받지 않은 채 의사의 수술을 받은 환자처럼 비구 역시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채 붓다가 제시해 주는 조문을 지키라고 하면 그로 인한 이익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의사가 앓을 내다보고 미리 적절한 조치를 제안한다 해도 병으로 고통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도리어 수술 중에 흘린 피나 진통이 억울할 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울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악행으로 고통받아보지 않은 이상 붓다가 아무리 좋은 규범을 만들어 주어도 지키는 어려움만 토로할 것이고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가에 인원이 많아지고 보시물도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유루법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이때가 되면 붓다도 유능한 의사가 적절한 때에 환자를 치유해 주듯이 악행을 금지하는 율을 제정해서 유루법을 타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수던나라는 비구가 대를 이어 달라는 어머니의 청을 못 이겨서 출가하기 전에 부부의 연을 맺었던 처와 음욕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승가에 나타난 첫 악행이었는데요. 경전에 따라서는 이때를 처음 승가가 만들어지고 난 5년 후 혹은 12년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두 청정한 행동만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승가에 첫 번째 악행이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붓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음욕행을 금지하는 조문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 행위를 금지하는 형태로 조문을 제정해 갑니다.

이것을 수범수제(隨犯隨制)라고 합니다. 즉, 저지를 때마다 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승가의 바라제목차 규범집은 일시에 한꺼번에 붓다가 좋은 규정들을 모아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승가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비구가 나타날 때마다 그 행동을 제지하는 형태로 추가되어 갔습니다. 즉, 율은 악행이 나타났을 때 그 악행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게 한 후에 제정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따른 것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비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먼저 조문화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율은 출가자에게 필요한 이상적인 규범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제시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현실 속에서 수지가 필요해진 행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의 제정 목적입니다.

이는 제계십리라고 불리는 가르침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분율에 기술되어 있는 제계십리인데요. 제계십리란 계 즉, 구속계를 설하는 이유 혹은 구속계를 지킴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첫째, 승가를 결함시키고 둘째, 승가를 기쁘게 하며 셋째, 승가를 안락하게 하고 넷째, 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자에게 신심을 일으키며 다섯째, 이미 신심을 지니고 있는 자의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하며 여섯째, 악인을 조복시켜 따르게 하고 일곱째, 범계했

더라도 참회함으로써 안락을 얻게 하고 여덟째, 현재의 번뇌를 끊게 하며 아홉째, 미래의 번뇌를 끊게 하고 열 번째, 정법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요컨대 승가가 화합하고 재가 신자들의 신심을 확보하며 비구가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 없도록 하여 승가가 영원히 존속하고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을 제정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바라제목차의 구족계는 총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 중 바라이와 승가바시사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중대한 죄이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바라이는 극중죄라고 해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바라이죄를 저지르게 되면 비구, 비구니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승가바시사는 중죄이기는 하지만 바라이보다는 가볍습니다. 비구니의 경우 바라이 8조로 비구의 바라이보다 2배입니다. 승가바시사도 비구는 13조이지만 비구니는 17조입니다. 양자 간에는 내용상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숫자만으로 양자 간의 차이를 표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문 수만 비교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편 부정법은 비구바라제목차에만 있습니다. 니살기바일제는 동일하며 바일제는 비구 90조, 비구니 178조로 비구니의 경우 거의 2배 많습니다. 바라제제사니도 4조와 8조로 비구니가 2배가 많습니다.

한편 중학법과 멸쟁법은 동일합니다. 이들 카테고리는 무거운 죄에서 가벼운 죄 순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멸쟁법은 승가에서 의견 충돌 등이 발생했을 때 가라앉히는 일곱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승가는 무엇보다 화합을 중시하는 공동체이므로 바라제목차 마지막에 멸쟁법을 모든 구성원의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제목차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인 비구 바라이 4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이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가리키는데요.

대상은 축생(畜生) 암컷에까지 이릅니다. 수딘나라는 비구가 대를 잇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청을 못이겨 전처와 음욕행을 저지른 것을 계기로 제정되었는데 이후에 다른 비구가 암컷 원숭이와 부정행을 저지르는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축생과 함께해서도 안 된다는 조문이 추가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투도 즉, 도둑질을 금지하는 조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5전 이상의 도둑질이 바라이죄에 해당합니다. 5전 이상이라고 기준을 정한 이유는 당시 이것이 국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기준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입니다. 후대에 등장하는 보살계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벌레와 같은 작은 생명을 빼앗는 것도 모두 바라이로 보지만 구족계에서는 살인만을 바라이로 봅니다.

네 번째는 대망어입니다. 큰 거짓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일반적인 거짓말은 바일제라고 해서 가벼운 죄로 다스려지는데 바라이죄에 해당하는 대망어는 자신이 깨닫지 않았으면서 재가 신자에게 공양을 받아낼 목적으로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250계의 계목 가운데에서 바라이 4개의 계는 극중죄로서 구족계 수계 의식을 행할 때

구족계 희망자에게 설해서 인지시킵니다. 다른 것들은 저질러도 참회를 통해서 청정을 회복하고 다시 비구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지만 바라이죄 같은 경우에는 저지르게 되면 비구의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비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승가바시사는 바라이 다음으로 무거운 죄인데요. 여기에는 자위를 하거나 욕정을 가지고 여인의 몸에 접촉한다거나 여인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적인 내용의 행위 혹은 중매를 서는 행위 혹은 쫓아낼 목적으로 다른 비구를 바라이죄로 비방하는 행위, 승가 분열을 도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승가바시사는 저지르게 되면 별주와 마나타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별주란 따로 거주한다는 뜻인데요.

승가바시사죄를 저지르고 숨긴 날짜만큼 승가의 한구석에 있는 주처(住處)에 머물며 근신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청정 비구로서 평소에 당연히 누렸던 권리, 예를 들어 법랍에 따라 인사를 받는다거나 스승으로서 제자를 두거나 하는 등 상당히 많은 것들에 있어서 제약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별주 기간을 잘 마치고 나면 이어서 마나타라는 근신 기간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마나타는 6일 밤, 즉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승가바시사죄를 저지른 자는 모두 거쳐야 합니다.

요컨대 별주는 죄를 저지르고 숨긴 자만 그 날짜만큼 근신하면 되지만 마나타는 승가바시사죄를 저지른 모든 자가 다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근신 기간을 성실하게 보내고 나면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승가에서 갈마를 받고 청정 비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라이와 승잔을 제외한 것들은 경죄로, 가벼운 죄로 분류되고요. 참회만을 통해서도 청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식주와 관련된 조문을 비롯해서 몸과 입에 관한 다양한 조문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중에 한 번만 식사해야 한다거나 음식물을 밤을 넘겨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이것들은 바일제에 분류되고요. 음주도 바일제로 금지되고 일상적인 거짓말도 전부 바일제라고 하는 행위로 다스려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학법인데요.

중학법은 익혀야 할 많은 법이라는 의미이며 한 명의 비구 혹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혼자 참회하면 되는 가장 가벼운 죄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탁발하러 갈 때의 옷매무새나 걸음걸이, 탁발하여 음식을 받을 때의 모습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의 선종 사원에서 청규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원에서 공양할 때의 규정으로 중학법에 있는 식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게 됩니다.

탁발과 자급자족으로 식생활 해결 방법은 다르지만 이를 받을 때의 마음가짐은 공통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학법은 굉장히 가벼운 경죄에 속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율을 제정하는 원칙과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율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나타날 때마다 수범수제 형태로 하나씩 제정되었고요.

제계십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승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제정되고 있습니다. 바라제목차는 바라이라는 중죄부터 멸쟁에 이르기까지 8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죄에 해당하는 바라이와 승가바시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참회를 통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재가 불교 신자의 규범인 오계와 팔재계에 대해 학습하면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불교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오계와 팔재계

이번 시간에는 재가 불교 신자인 우바새와 우바이가 지켜야 할 규범인 오계와 팔재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교가 중요시하는 윤리적 행위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가 불교 신자인 우바새나 우바이가 되기 위해서는 삼귀의를 하고 오계를 수지해야 합니다. 삼귀의란 불교의 세 보물인 삼보 즉, 불교의 개조인 붓다와 붓다가 설한 가르침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출가해서 수행하는 출가자들로 형성된 승가에 청정한 믿음을 갖고 귀의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계는 5개의 계를 말합니다. 오계라고 할 때의 계는 산스크리트어 설라의 한역으로 원래 ‘성질이나 특징, 습관, 행위’ 등을 의미하는 말인데 불교 용어로 사용될 때는 특히 ‘좋은 습관이나 좋은 특징, 선한 행위, 도덕적 행위’ 등을 뜻합니다. 계는 비유하자면 세간의 도덕이나 윤리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어긴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오로지 개인의 의지나 결의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자발적으로 악을 떠나고자 하는 강한 정신력을 갖고 노력함으로써 점차 악한 행위로부터 벗어나 선한 심신을 갖추어가는 것이 계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거는 한국 사찰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오계 수계식의 모습입니다. 수계자들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합장한 후에 자신이 지은 그 동안의 허물을 삼보 전에 참회하고 나면 연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연비는 수계 의식을 통해 세운 서원을 평생 잊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향불로 자신의 팔을 태우는 의식입니다. 향 끝에 불을 붙인 후에 그것으로 팔뚝 위를 살짝 누릅니다. 육신의 고통을 참으면서 앞으로 계를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오계는 흔히 불살생 즉, 살생하지 마라, 불투도, 도둑질하지 마라, 불사음, 샷된 음행을 하지 마라, 불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마라라고 해서 살생 등의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하자면 금지의 의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원전의 표현을 보면 금지의 의미가 아닌 이런 행위는 나쁜 행위니까 자발적으로 떠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역에 비해 다섯 조

문 모두 상당히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불살생계를 보면 ‘생물을 죽이는 행위를 떠나는 학처를 저는 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물이란 조그만 벌레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물을 직접 살생하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생하든 도구나 뗏, 진언을 사용해서 살생하든 모두 악행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떠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하에 이 학처를 평생 지켜나가겠다고 맹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들도 동일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섯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계는 다른 4개의 계와는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은 그 자체로 악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섯 번째는 즉, 음주는 그 자체 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살생 등은 원래 죄라고 해서 성죄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섯 번째는 막는 죄라고 해서 차죄라고 표현합니다. 즉,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다른 악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긴장이 풀리거나 심신이 흐트러져서 아무래도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거짓말뿐만이 아닌 이간질시키는 말이나 아첨하는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등 모든 진실되지 못한 말들이 포함됩니다. 흔히 주변을 보면 ‘나는 술을 마셔도 별로 취하지 않아.’라거나 아니면 나는 술에 취해도 결코 실수는 하지 않아.’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음주를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입도 풀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잘 살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분명 자신의 몸과 입을 위험한 상태로 내몰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이로 인해서 살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 외에 적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방일의 원인으로 보면서 오계 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야 하는데 술을 마셔서 심신이 흐트러지면 방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일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보통 사티라고 해서 자신의 심신에 집중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살펴야 하는데 그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와 거의 동시대에 발생한 자이나교에서는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와 더불어서 무소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살생 등의 네 가지 행위는 붓다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악행으로 받아들여졌던 행위로 보이는데요. 자이나교에서는 이에 무소유를 추가한 것이고요. 불교는 음주 문제를 넣은 거죠. 이로 보아서 음주를 경계하는 것은 사실 불교의 굉장히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계는 재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들입니다. 불교가 인도를 넘어서 세계 각지로 퍼져 가는 동안에 시간과 공간의 차이 없이 이 오계는 모든 불교도가 중시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물론 실천 여부의 문제는

별개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규범입니다.

한편 오계와 더불어서 재가 불교 신자가 지켜야 할 계로 팔재계가 있습니다. 팔재계는 오계에 여섯 번째, 꽃다발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향유 등의 화장품류를 몸에 바르지 말며 노래하고 춤추거나 연극 등 잡기를 하지 말고 일부러 가서 보거나 듣지도 말라는 것이 추가되고요. 일곱 번째, 크고 화려한 침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여덟 번째,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후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계를 포함해서 전부 팔재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의 세 가지는 장신구나 향수 등을 사용하거나 가무를 즐기므로 인해 심신이 흐트러질 것을 경계하고 있고 크고 화려한 침상에 앉거나 누움으로써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는 것은 비시(非時) 즉, 그 날 정오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식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비시라고 하는 것은 즉, 때가 아닌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오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결국 하루 중의 단 한 번, 오전 중에만 식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식 식사는 오전 중에 한 번만 하고 이 외의 시간에는 물이나 주스 등 건더기가 없는 음료수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탐욕을 배제하고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 세 가지 계 외에 오계 가운데서 세 번째로 거론되는 샛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조문의 경우에는 팔재계에서 약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팔재계의 경우에는 샛된 음행이 아닌 모든 성적 행위가 다 대상이 됩니다. 즉, 오계의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팔재계의 경우에는 모든 음행을 다 금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오계가 불교 재가 신자로 사는 이상 평생 매일매일 지켜야 할 계라면 재가자의 포살은 한 달에 8, 14, 15, 23, 29, 30일의 6일 동안만 지키면 됩니다. 이를 육재일(六齋日)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이 6일만이라도 예비 수행자에 가까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 수행자란 사미니 사미니를 의미하는데요. 구족계를 받고 비구나 비구니가 되기 전의 신분이 사미니 사미니인데 이들이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는 팔재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듯 팔재계를 지키며 특별히 수행하는 것을 재가자의 포살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출가자의 포살과 더불어 이는 원래 인도의 바라문교 종교 행사 중의 하나였던 우파와사타(upavasatha)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우파와사타의 기원은 베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라문교에는 신월제(新月祭)와 만월제(滿月祭)라고 해서 신월과 만월의 날에 재가자들이 조령(祖靈)을 위해 공양제를 거행하는 관습이 있는데요.

우파와사타라고 하는 건 소마제라고도 불리는 이 공양제 전날 철야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월과 만월의 전날이 되면 제주(祭主)는 공양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양을 위한 화사(火舍)에 들어가 단식 혹은 절식하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며 금계(禁戒)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 날 신이 찾아와서 공희자와 함께 머문다는 것으로부터 신과 가까이 머문다는 의미를 지니는 우파와사타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라문교에서는 14, 15일을 재일(齋日)로 중요시했는데요. 이 관습이 불교에 도입되면서 제8일째 역시 당시 재가자들 사이에서는 조령에 대한 공양 의식을 행하며 청정히 생활해야 할 재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 교단의 재가 신자들은 보름 가운데 이 3일 동안 가까운 승원에 가서 설법을 듣거나 명상을 하고 또 출가자로부터 팔재계를 받아 지키며 청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초기 경전에 의하면 8, 14, 15일이 재일인 이유는 보름 가운데 제8일째는 사대왕(四大王)의 부하가, 14일째는 사대왕의 왕자가, 15일째는 사대왕 자신이 세간을 순찰하며 일반인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문, 바라문 등의 종교인을 존경하고 장로를 존경하며 재계를 잘 지키고 복업을 쌓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며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33천에게 보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살일 아침이 되면 재가자들은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근처에 있는 승원을 찾아가 비구 앞에 무릎 꿇고 합장한 채 팔재계의 수지를 맹세하게 됩니다.

팔재계를 지키면서 경건한 하루를 보낸 후 오후가 되면 포살일의 설법이 시작되고 이것을 들으며 평상시 궁금했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재가자들은 원한다면 다음 날 아침까지 승원에 머무르며 법을 들어도 좋습니다. 팔재계를 지킨 다음 날 아침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승원에 와서 출가자에게 보시하며 공덕을 쌓게 됩니다. 재가자에게 있어서 포살일은 보름에 3일 만이라도 출가자와 유사한 생활을 하며 정진함으로써 심신의 제어는 물론 이를 통해 공덕을 쌓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가 불교 신자인 우바새와 우바이가 수지해야 할 규범인 오계와 팔재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계는 살생, 도둑질,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사된 음행, 거짓말 그리고 음주처럼 정신을 마비시켜서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독성을 지닌 것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와 실천을 강조하는 규범입니다. 출가자가 지켜야 할 율처럼 강제성이나 어겼을 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주의하며 지켜서 자신의 심신을 다스리고 환각성을 선한 방향으로 심신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물론 출가자의 경우에도 악행을 떠나고자 하는 자발적인 계의 정신은 율을 지킬 때도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팔재계는 한달에 6일만이라도 예비 수행승과 동일한 수행을 하며 정진하기 위한 계입니다.

오계와 팔재계는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해진 이후에도 불교신자의 규범으로서 중요시되며 시대에 따라 부침은 있었다 해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III . 퀴즈

1. 문제: 다음 중 사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① 우바새 ② 비구 ③ 비구니 ④ 사미니

정답: ④ 사미니

설명: 사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입니다. 사미니는 출가오중 혹은 칠중 중 하나입니다.

2. 문제: 붓다의 첫 비구 제자는 야사와 그의 친구들이다.

정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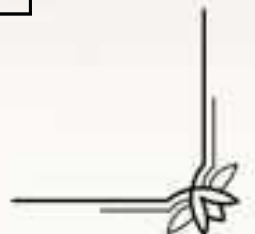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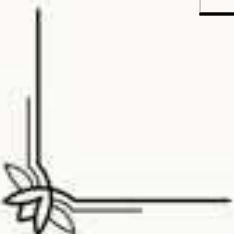
설명: 붓다의 첫 비구 제자는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귀의한 다섯 명의 비구입니다.

3. 문제: 다음 중 사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걸식 ② 분소의 ③ 청식 ④ 진기약

정답: ③ 청식

설명: 사의는 불교수행자가 지켜야 할 이상적인 생활양식으로 걸식, 분소의, 수하좌, 진기약입니다.



4. 문제: 비구 혹은 비구니가 될 때 받는 계를 구족계라고 합니다. 이 구족계를 모아놓은 조문집은 바라제목차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문 하나 하나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학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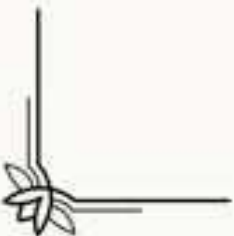
설명: 배워할 할 구절이라는 의미에서 학처라고 합니다.

5. 문제: 다음 중 오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 ① 거짓말하지 않는다 ② 술을 마시지 않는다 ③ 가무를 즐기지 않는다
④ 살생하지 않는다

정답: ③ 가무를 즐기지 않는다

설명: 가무를 즐기지 않는 것은 사미십계 혹은 팔재계 중 하나이며, 오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IV. 참고문헌

- 平川彰, 『原始佛教の教團組織 I』, 春秋社, 2000
- 佐々木閑, 『出家とはなにか』, 大藏出版, 1999
- Bhikkhu Analayo, The Foundation History of the Nun' s Order, Freiburg, 2016

